



기사 보도 자료용
2024년 8월 8일

15회 광주비엔날레 제 1회 독일 국가관 전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독일관에서 예술가 콜렉티브 - '론제가 프로젝트 (Longega Project)'는 '물길 사이에서- 두물 마을' 전시를 선보인다.

론제가 프로젝트 작가:

Fabian Feichter 파비안 파이히터, **Youlee Ku** 구유리, **Siyoung Kim** 김시영, **Nele Ka** 넬레 카, **Oliver Haussmann** 올리버 하우스만

객원작가:

클라우디오 마티아스 베톨리니, 페데리코 델프라 티, 홍성용, 프랑소아 후버, 김호빈, 김혜순, 황미영, 김자이, 김규년, 마이카 모니크 반덴드리세, 슈테파니 물러 & 클라우스 에리 카 디에틀, 박술, 설박, 신제현, 윤세영, 광주 조선 대학교 미술대학

큐레이션: 론제가 프로젝트, 플랫폼 뮌헨, 소피-샬롯테 봄벡 협업
프로그램 큐레이팅: 론제가 프로젝트

주최 및 코디네이션: 플랫폼 뮌헨, 독일

15회 광주 비엔날레: 2024년 9월 7일 - 12월 1일
독일관 공식 오픈닝: 2024년 9월 7일, 오후 3.30
장소: 광주 역사 민속박물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 48-25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의 공식 일정:

프리뷰: 2024년 9월 5일~6일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기자 회견: 2024년 9월 6일, 오후 12시~4시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i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



제15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 2024년 9월 6일, 오후 6시



론제가 프로젝트 (사진: 왼쪽부터) 올리버 하우스만, 넬레 카, 구유리, 김시영, 파비안 파이히터
사진: 신예규
원헌, 2024년 8월

올해 독일은 한국 광주 비엔날레에서 처음으로 국가관을 선보인다. 2024년,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미술 비엔날레 중 하나로, 예술 감독 니콜라 부리오의 지휘 아래 "판소리 - 21세기의 소리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30주년을 기념한다.

론제가 프로젝트는 2017년 파비안 파이히터와 구유리에 의해 설립된 예술가 그룹으로, 이탈리아 남티롤 알프스의 라딘 마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예술가들에게 돌로미티의 기슭에서 아름다운 시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으며, 예술가들에게 독특한 장소에서의 경험과 실험적인 작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있다.

"론제가 프로젝트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탐구와 만남의 공간이다. 작은 이야기들을 남기고 많은 새로운 생각들을 자극한다." (예술가, 파비안 파이히터)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ennale](https://www.instagram.com/germanpavilion.gwangjub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



론제가 프로젝트는 대안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예술가들은 장소 특화된 행동과 실험적 재 발견을 위해 모이며, 이는 주변 환경, 이야기, 신화, 다양한 언어와 얽혀 있다. 이러한 행동과 아이디어는 예술로 변형되고 서사를 통해 구체화된다. 각 행동과 객체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며, 이 프로젝트는 도시의 모호한 측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술가들에 의해 선택된 인류의 기원을 상징 요소들 - 숲, 산, 강, 불, 오두막, 운동, 수집 - 으로 돌아간다. 이 일곱가지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요소들은 의미 있는 이야기로 깨어나며, 그 곳의 오래된 신화, 공동체 생활과 요리, 강 위에 다리 건설, 배드민턴 토너먼트와 같은 사건들은 일상적인 삶의 시적 행위로 변모하고 론제가 프로젝트의 예술적 작업으로 변화된다.

2018년부터 큐레이터 소피-살로테 봄벡은 작가 김시영과 함께 광주와 뮌헨 간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감독해왔다. 이들은 독일과 한국 간의 지속적인 전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PLATFORM 뮌헨과 호랑가시나무 창작소(광주)와 협력하고 있다.

광주 비엔날레 독일관: 만남과 우화의 장소

광주 독일관에서 론제가 프로젝트는 문화적 만남과 융합을 상징하는 설치물 들을 선보인다. 작업들은 광주 역사 민속 박물관에 여러 개의 공간으로 설치 **되며** 그 들의 지나온 이야기를 무대화한다.

론제가 프로젝트에 의해 재해석 된 나무 오두막은 만남과 교류의 장 으로서의 전시의 주된 무대 역할을 하며, 야광 식물은 인류의 탐색 본능을 자아낸다. 숲을 표현한 운동기구 위에 배치된 나무들은 내면 성찰과 최적화 욕구의 긴장을 탐구하며, 전기 모닥불과 민속 악기에서 영감을 받은 조각들은 방문객들이 그 주변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이끈다. 또한, 파라핀으로 재건된 다리는 기능 부전과 상징적 힘 사이의 긴장을 소개한다.

'물길 사이에서 - 두물마을'의 일곱 가지 요소는 관람객들이 론제가 프로젝트가 지향하는 낮은 문턱의 예술적 실천과 콜렉티브 작업 방식에 대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 설치물들은 현대화된 세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에 내장된 현실의 유토피아로의 도피를 탐구하며, 협동 연구, 놀이, 탐색, 모임, 교환이 모든 감각으로 경험될 수 있는 공간을 찾고자 한다.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i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



초대 하는 것과 초대 되는 것

독일 국가관은 론제가 프로젝트를 통해 초대와 초대되는 상호 교환의 의미 있는 장소가 된다. 초청된 게스트 아티스트들은 공연, 낭독, 워크숍 등을 통해 방문객들과 교류한다. 예를 들어, 음악 그룹 쿤스트슈토프 베르트슈토프(Kunststoffwerkstatt)는 전기 모닥불에서 프란츠 알라인(franz allein)과 협력하여 공연을 진행한다. 배드민턴 토너먼트는 관객들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초대하며, 오디오 가이드는 아티스트들의 관점에서 작품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방문객들이 론제가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한다.

독일관은 비엔날레의 대표 주제를 참조하며, "판소리(Pansori)"는 다양한 목소리와 소리의 상호작용이 인류의 글로벌 격변을 반영한다고 본다.

참가자 및 파트너

론제가 프로젝트는 파비안 파이히터와 구유리가 설립한 예술 교환 프로그램이다. 이탈리아 남티롤의 론제가에 위치하며, 매년 여름 한국과 독일의 예술가들을 초대해왔다. 2019년부터는 새 멤버 김시영과 유디트 노인호이저가 합류했다.

독일 국가관 조직: **PLATFORM** 플랫폼 뮌헨

플랫폼은 뮌헨에 위치한 다목적 예술 공간으로, 연중 내내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플랫폼은 문화 관리 분야에서 1년 인턴십을 제공하며, 스튜디오와 전시 공간도 갖추고 있어 예술적 실천과 매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장소이다. 2500㎡ 규모의 구 산업 단지에 자리한 플랫폼은 예술가와 문화 작업자 간의 지속적인 교환을 촉진하며, 지역 및 국제 큐레이터들이 선보이는 현대 미술을 전시한다. 또한, 강연 및 심포지엄을 조직하여 현재의 미술 담론을 자극한다.

협력 파트너: 호랑가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및 레지던시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호랑가시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는 매년 다학제적 아티스트 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 프로그램 시작 이후, 뮌헨, 리스본, 이탈리아, 비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a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



엔나의 예술가들과 다양한 문화적 교류중 이다. 2021년부터는 광주 비엔날레도 개최하며, 다양한 배경의 예술가들 간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장소: 광주 역사 및 민속 박물관

광주 역사 및 민속 박물관은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에서 첫 번째 독일 국가관과 론제가 프로젝트의 대규모 설치를 위한 750m² 이상의 넓은 전시 공간을 제공한다.

자금 지원:

제15회 광주 비엔날레의 독일 국가관은 ifa - 해외 문화 관계 연구소의 지원과 독일 연방 외무부의 재정 지원으로 실현되었다.

보도 자료 이미지 다운로드: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de

Instagram @germanpavilion.gwangjubiennale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iennale](https://www.instagram.com/germanpavilion.gwangjubi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



보도 연락처:

Radmila Krstajić, Paula Nitsche
presse@platform-muenchen.de
0049 · 89 · 324 · 9009 · 14

법적 책임 주체: Münchner Arbeit gemeinnützige GmbH

회사 형태: 비영리 유한 책임 회사

대표이사: Johann Stelzer

등록 법원 및 번호: 뮌헨, HRB 98967

감사 위원회 위원장: Manuel Pretzl

Gefördert durch das **MBQ**
Münchner Beschäftigungs-
und Qualifizierungsprogramm



PLATFORM은 뮌헨 고용 및 자격 프로그램(MBQ)의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muenchen.de/mbq를 방문해 주세요



광주비엔날레
GWANGJU BIENNALE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광주역사민속박물관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SEOCHON
GALLERY & ARTSPACE



호랑가시나무 창작소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in between water - 두물마을
Sep 8 - Dec 1, 2024

Gwangju History & Folk Museum
48 -25 Seoha-ro, Buk-gu, Gwangju, South Korea
Opening Hours: Tue - Sun, 10 a.m. - 6 p.m.

www.german-pavilion-gwangju-biennale.org
[@germanpavilion.gwangjubennale](https://www.instagram.com/germanpavilion.gwangjubennale)

PLATFORM Munich
Kistlerhofstraße 70 | 81379 Munich, Germany
contact@platformmuenchen.de

german
pavilion
gwangju
biennale
2024

in
between
water
두물마을